

## 언택트 시대의 상생의 윤리\*

이종원 (계명대학교, 조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언택트의 확산과 그늘
  - 1. 언택트 산업의 확산
  - 2. 언택트의 그늘
- III. 불평등의 심화
  - 1. 불평등의 중력
  - 2.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
- IV. 상생의 윤리
  - 1. 연대와 협력
  - 2. 카리타스와 은혜
  - 3. 살림과 누림의 경계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2.52.10>

\* 2021년 11월 27일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

• ABSTRACT •

---

## The Symbiotic Ethics in the Untact Era

Lee, Jong-won (Assistant Prof. Keimyung University)

The abnormal phenomenon of instability, inequality, and uncertainty has continued because of the pandemic. This paper aims to survey the ethics of symbiosis focusing on social inequality and polarization faced in the untact era. Through the research, this paper attempts to prepare a foundation to realize the ideal feature that justice and peace kiss each other, embracing the fragmented and alienated people and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would be at one with solidarity. The alternative attempts to overcome inequality and injustice of reality are as follows. First, we can strengthen the solidarity and collaboration through establishing parallel organization instead of existing cooperatives. Second, Dividing jobs through sharing. Third, through basic income we can give people an opportunity to redesign their life. We can summarize that the divine kingdom's economy has two visions of God's friendly selection for the poor and fruitful lives for all. This economy is an inclusive method to embrace the worst people driven in the competitive structure for profit-seeking. This is the so-called win-win economy.

**Key words:** Untact, Symbiosis, Untact Divide, Caritas, Solidarity, Cooperation

---

## I. 들어가는 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팬데믹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치료약이 개발되었고, 백신접종이 꾸준히 진행되었음에도 돌파 감염으로 인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의 거리두기로 인해 불황에 빠진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방역의 끈을 늦출 때마다 확진자가 급증하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만든다. 포스트코로나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 이후를 의미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일지 알 수 없고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기에 코로나가 일상이 되는 삶을 준비하고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꽤 설득력 있어 보인다.<sup>1)</sup>

바이러스 팬데믹은 해결되었지만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인플루엔자처럼 겨울철마다 유행하고 2~3년에 한 번씩은 크게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언제쯤 마스크 없는 생활을 하게 될지, 언제쯤 세계 무역이 정상화되고 경제가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불안정성, 불평등성, 불확실성 등의 비정상적인 현상이 지속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급변하는 상황에 빠르게 적응한 이들은 이를 디딤판 삼아 도약을 꾀할 수 있었지만, 자영업자들은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sup>2)</sup>

- 
- 1) 이재갑, “위드 코로나 시대,” 김누리 외, 『코로나 사회언스, 새로운 도약 : 대한민국 대표 석학 8인이 신인류의 지표를 제시하다』 (서울: 인플루엔셜, 2021), 221 참고.
  - 2)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재앙 수준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2억 개의 일자리가 증발했으며, 적어도 20억 명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20년 영양실조로 고생하는 아프리카인 수가 2019년에 비해 3배가량 많아져 2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Jacques Attali, *L'economie de la vie*, 양영란 옮김, 『생명경제로의 전환』 (서울: 한국경제신문, 2020), 125, 127.

『쇼펜하우어 인생론』에 나오는 고슴도치의 우화는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곤경에 처한 우리의 현실을 잘 드러낸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 달라붙어 한 덩어리가 되었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떨어지게 되었다. 고슴도치들이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원했지만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고슴도치의 딜레마(Hedgehog's dilemma)이다.<sup>3)</sup> 추위를 피하려면 함께 붙어 있어야 하는데 가시로 인해 가까이할 수 없듯, 코로나 상황은 우리가 친밀하고도 돈독한 관계를 원함에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고슴도치의 딜레마는 자립과 상대와의 일체감이라는 두 욕망 사이의 딜레마이다.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만, 본의 아니게 상처 입힐 수 있기에 서로 간에 좀 더 신중하고 배려해야 할 것을 교훈한다. 쇼펜하우어는 서로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정중함과 예의라고 하였다. 이기심을 버리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서로 간에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밀폐, 밀접, 밀집 등 3밀(密)을 피해야 하는 상황을 지속시키고 있다. 여행, 예술과 문화, 외식과 여가생활 등 함께 모여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삶을 누리고 나누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시켰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어서 비대면 형식을 유지하다가 최근에서야 대면 형식으로 전환되었다. 반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관련 서비스 산업은 호황을 이루었고, 이와 더불어 택배와 배달 서비스도 매출이 덩달아 증가하면서 언택트(untact)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 고슴도치들은 실제로 추위를 피하고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체온을 유지하거나 잠을 잔다. Arthur Schopenhauer, *Parerga und Paralipomena*, 김재혁 옮김, 『쇼펜하우어 인생론』 (서울: 육문사, 2012), 391. 프로이드는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를 인용하면서, 친밀한 감정적 관계는 혐오감과 적대감의 양극을 내포하지만, 억압되어 있어서 인식하지 못할 뿐이라고 보았다. Sigmund Freud, *Das Unbehagen in der Kultur*, 김석희 옮김, 『문명 속의 불만』 (과주: 열린책들, 2020), 115-116.

언택트(untact)는 접촉을 의미하는 ‘contact’ 앞에 부정 의미인 ‘un’을 합성한 ‘언컨택트(uncontact)’의 줄임말이다.<sup>4)</sup> 언택트는 비대면 형식으로 정보나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사회적 경제적 행위 전체를 의미한다. 언택트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의식주, 교육, 노동, 소비, 문화, 생태, 종교 등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물리적 거리는 심리적 거리를 파생시켜 소통의 단절로 인한 소외와 차별과 배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언택트가 이러한 흐름과 맞물리면서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본 소고에서는 언택트 시대에 직면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생의 윤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변으로 밀려나 소외된 이들을 품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연대하면서 하나가 되어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춤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II. 언택트의 확산과 그늘

### 1. 언택트 산업의 확산

언택트는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과의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거나 비대면 형태로 접촉하는 행위 전반을 말한다. 패스트푸드 매장의 ‘키오스크(안내 단말기)’, 이베이코리아의 무인 택배함 ‘스마일 박스’,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재택근무나 원격의료 및 온라인교육, VR(가상현실) 쇼

4) 언택트란 말은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기술과 산업적 진화에 따라 비대면 거래와 무인 거래가 유통에서 중요한 트렌드가 된다면서 ‘언택트 마케팅’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후 언택트라는 말은 유통 트렌드 키워드로 자리 잡았고, 매스 미디어로 확산되면서 일상적으로 쓰는 보편적 용어가 되었다. 김용섭, 『언컨택트』 (서울: 퍼블리온, 2020), 12.

핑·챗봇 등은 언택트와 연관된다. 언택트는 자동화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무인이나 셀프, 또는 원격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력과 경비를 절감할 뿐 아니라 보다 상황 적응적이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점을 지닌다.

2019년 3월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셀프스토어’를 오픈했다. 해당 매장은 직원이 없는 대신 스마트 기기를 매장 곳곳에 비치했다. 피부 상태를 점검하고 피부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는 기기부터, 진행 중인 세일 행사를 알려 주고 최신 유행 색조 화장품을 안내하는 기기 등으로 고객의 제품 선택에 도움을 제공했다.

2019년 9월에는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 ‘이마트24 셀프스토어’를 오픈했다. 매장 출입 시스템은 QR코드를 인식한 직후 내부로 입장하는 고객을 QR코드 소유자로 인식한다.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 31대가 QR코드 주인으로 인식한 고객을 오류 없이 추적할 수 있으며, 상품이 놓인 매대마다 상품 무게를 감지하는 센서가 장착돼 있어 고객이 상품을 집어 들거나 내려놓을 때마다 인공지능(AI)이 인지할 수 있다. 고객이 사려는 물건을 들고 출입기 바깥으로 나오면 결제가 이뤄졌다는 메시지가 고객 앱을 통해 5~10초 만에 전송된다.<sup>5)</sup>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온라인 구매, 온라인 banking, 온라인 서류 전형, 인터넷 강의, 화상회의, 인터넷 카페 등과 비대면 활동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활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거나 축소되자 언택트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영화나 연극, 뮤지컬 등과 같은 문화예술 영역은 집합 금지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공연은 대부분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

5) “이마트24 셀프스토어 ‘찍고, 들고, 나오면 끝’”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168> (2021년 11월 20일 접속)

었으며, 영화관도 문을 닫거나 최소 인원만 입장할 수 있었다. BTS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을 기획하여 2020년 6월 ‘방방콘 더 라이브’를 했는데, 75만 명 이상의 유료 관객이 몰려 티켓 수익으로만 257억 원을 벌어들이는 쾌거를 이루었다. 첫 공연의 성공으로 가능성을 확인한 BTS는 10월에도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을 통해 500억 원 이상의 티켓 수익을 얻었다.<sup>6)</sup>

패션업계도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는데, 비대면 비즈니스로 전환하여 활로를 모색하였다. 상하이 패션위크 ‘2020년 FW 패션쇼’를 디지털 행사로 기획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몰(Tmall)’과 생방송 커머스 ‘타오바오 라이브(Taobao Live)’를 통해 150개 브랜드의 컬렉션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했다. 첫날 동시접속자 수가 4만 명에 달했고, 패션위크 동안 조회 수는 1,100만 회를 기록했으며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한 금액만 약 34억 원에 달했다.<sup>7)</sup>

쇼핑업계도 점포 매출 하락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언택트를 도입하였다. 롯데백화점은 2019년 12월부터 ‘100LIVE’라는 라이브커머스 채널을 운영하면서 ‘롯데ON’을 통해 방송했다. ‘100LIVE’는 브랜드숍 매니저, 쇼호스트 등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직접 매장에서 쇼핑하는 느낌을 살렸다.<sup>8)</sup> 소비자는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쌍방향 소통을 통해 상품의 품질과 맛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언택트의 확산과 더불어 ‘올테크(YOL-tec)가 새로운 소비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올로와 짠테크(짠돌이+재테크)의 합성어인 올테크는 자기

6) 김용섭, “비대면의 역전,” 김누리 외, 『코로나 사피엔스, 새로운 도약 : 대한민국 대표 석학 8인이 신인류의 지표를 제시하다』 (서울: 인플루엔셜, 2021), 190.

7) 같은 책, 190.

8) 이상근, 『뉴노멀시대 물류기업은 사라질까』 (서울: 아웃소싱타임스, 2021), 159.

만족을 위한 소비를 중시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가성비비를 중시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 비용을 절약하는 것을 의미한다.<sup>9)</sup>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집에서 머무르는 생활이 지속됨으로 인해 지친 사람들이 미닝 아웃(Meaning Out)과 같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되었다. 미닝 아웃은 신념을 뜻하는 ‘미닝(Meaning)’과 ‘벽장에서 나오다’라는 뜻의 ‘커밍아웃(Coming Out)’을 결합한 신조어로서,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옳다고 지지하는 ‘소비’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소비성향을 의미한다.<sup>10)</sup>

2000년대부터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한 것도 1인 미디어의 발전과 맞물려 언택트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대면접촉은 줄어들겠지만 비대면 형식의 언택트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로 간의 관계 맺기 방식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대면접촉에서는 당연시되는 정중함과 예의가 비대면 상황에서는 사라짐으로 인해 오해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서로 연결될 상대를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식이 요청된다. 또한 언택트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 또한 필요하다. 무엇보다 서로 간에 투명하고 공정한 관계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언택트의 그늘

언택트는 대면적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소통방식으로서 확산되고 있지만,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기계가 인력을

9) 같은 책, 276.

10) “미닝 아웃이란? 언택트 뜻, 언택트란?” <https://krand.kr/113> (2021년 11월 11일 접속)

대신하게 됨에 따라 일자리 감소와 언택트 디바이드(untact divide)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첫째, 언택트로 인한 구조조정의 여파로 일자리 감소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언택트가 일상화된 하이테크 사회는 그에 적합한 업무 능력을 지닌 소수의 인력만을 필요로 하며,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경제구조로 변모하게 된다. 언택트에 AI나 자동화 기술이 접목되면서 무인 점포가 확산됨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인력은 잉여 인력으로 전락하면서 실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언택트가 기반하고 있는 생산과 서비스 영역은 규모의 경제와 맞물려 있기에 독점의 가능성이 크다. 폴 애들러(Paul Adler)에 따르면, 네트워크의 사회화는 규모의 경제와 더불어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촉매가 되지만,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자산의 효용가치 또한 증가하기에 독점의 위험성이 크다.<sup>11)</sup> 가령 페이스북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이용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치 또한 늘어나면서 더 큰 규모로 성장하게 된다. 이는 광고주들에게는 매력적이며 더 큰 효용가치를 지니면서 성장하게 된다. 구글도 검색 알고리즘이 발전함에 따라 광고주들이 구글의 네트워크 효과에 편승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창출된 이윤은 소수만 독점하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의 구조로 변질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셋째, 언택트 디바이드(untact divide)에 대한 우려가 있다. 언택트 디바이드는 언택트 기술이 늘어나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현상으로, 특히 디지털 인프라가 취약한 저소득층이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지 않은 노년 계층이나 장애인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

11) Paul Adler, *The 99 Percent Economy*, 한은경·김윤진 옮김,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과주: 21세기북스, 2021), 115 참고.

날 가능성이 크다. 젊은 세대들의 경우 키오스크 시스템을 잘 이용하고 익숙하면 오히려 편하다는 반응이 있지만, 언택트 플랫폼이나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기성세대나 경제적 빈곤으로 스마트폰이 없거나 혹은 스마트폰이 있어도 서툴거나, 카드나 디지털 계좌가 없는 사람들은 소외되거나 배제된다. 이처럼 언택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한 사람과 적응하지 못한 자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 언택트가 새로운 사회적 단절과 고립의 장벽이 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언택트가 초래한 디스토피아의 슬픈 현실이다.

### III. 불평등의 심화

#### 1. 불평등의 종력

불평등은 마치 중력과 같아서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된다. 자본주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불평등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승자독식 위주의 경쟁은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여 사회 갈등을 심화시킨다. 부의 불평등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현재 세계 최고 부자 85명이 전 세계 빈곤층 35억 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재산이 많으며, 역사상 가장 부유한 국가인 미국에서는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20% 이상을 벌어들인다.<sup>12)</sup>

미국의 경우, 지난 반세기 동안 부가 집중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상위 1%가 아니라 최상위 0.1%다. 2012년 기준 미국에서 최상위 0.1%에 해당하는 약 16만 가구가 차지한 부의 비율은 미국 전체 부의 22%에 달했다. 1963년만 해도 최상위 0.1%의 부는 약 10%에 불과했다.

12) Keith Payne, *Broken ladder*, 이영아 옮김, 『부러진 사다리』 (서울: 와이즈베리, 2017),

1980년대 중반에는 하위 90% 그룹이 미국 전체 부에서 약 35%를 차지했으나,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0년대에는 12%로 하락했고, 정확히 그만큼 최상위 0.1%의 부가 증가했다. 그런데 최상위 0.1%의 늘어난 부는 하위 90%에게서 온 것이었다.<sup>13)</sup>

바이러스 팬데믹은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은 점점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집합 금지와 거리두기로 지속된 영업시간 단축과 규제는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아 버틸 여력조차 없게 만들었다. 최근 국제 여론조사업체인 입소스가 28개국을 조사한 결과, '빈곤과 불평등'이 세계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 다음으로 실업, 즉 일자리 걱정이 뒤를 이었으며, 코로나19는 '금융·정치 부패'와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했다.<sup>14)</sup>

반면 비대면 형식의 플랫폼 관련 기업은 틈새시장으로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언택트는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소통과 경제행위를 가능하게 하므로 매력적이다. 온라인 서비스는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 시장을 겨냥하기에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속성은 언택트와 맞물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양상으로 기울 수 있어 문제시된다.

매튜 스투어트는 '세대 간 소득 탄력성(IGE, intergenerational earnings elasticity)'이 있어서 계층의 장벽을 깨고 더 높은 계층으로 진입하기가

13) Matthew Stewart, *(The) 9.9 Percent is the New American Aristocracy*, 이승연, 『부당세습』 (서울: 이음, 2005), 18 참고. 부호들은 불로소득자들인데, 이들의 자산은 대부분 평범한 이들에게 빼먹은 지대(地代)로 창출되고 유지된다. 옥스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미국 억만장자들의 자산 75%가량이 지대로 끊어모은 것이었다. 이들은 땅, 지식, 돈 등에 대한 지배권을 이용해 부를 늘린다. 우리나라 또한 토지의 46%를 상위 1%, 70%를 상위 5%가 소유하고 있는데, 부동산 거품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의 힘으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명훈, 『카키스토크라시』 (서울: 비아북, 2021), 47 참고.

14) "세계인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코로나가 아니었다, 1위는 ○○○" <https://news.v.daum.net/v/20211113091603777> (2021년 11월 13일 접속)

얼마나 어려운지를 계층의 사다리에 묶인 상태로 비유하였다. 즉 각자의 발목이 부모가 속한 계층의 사다리에 고무줄로 연결되어 묶여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부모가 사다리의 높은 쪽에 있다면, 떨어지려 할 때 고무줄의 탄성으로 인해 끌어 올려질 것이지만 자신의 부모가 사다리의 낮은 쪽에 있다면, 아무리 올라가려 애써도 고무줄로 묶여 있어 끌어 내려질 것이다.<sup>15)</sup>

고무줄의 탄성을 극복할 정도로 특별한 재능을 갖거나 탁월한 노력과 의지를 통해 고무줄을 끊어버리지 않는 이상 고무줄에 묶인 채로 계층의 주변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계층의 사다리는 상위 계층의 기득권을 비호한다. 자격증 제도가 그 실례인데, 치과에는 치위생사가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유리 천장’이 있어서, 의사가 상위 계층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저작권과 특허법은 제약,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은 산업 부문에서 특권층의 이윤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력의 형태로 부모 계층을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두는 다양한 형태의 고무줄과 유리 천장이 계층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특권층의 불안정성은 커진다. 상위 계층은 이런 불안정으로 인해 아래 계층을 배제하고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벽을 쌓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된다. 계층 간의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 쌓기는 두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낳는다. 첫째, 전문직의 독점적 지위를 높여 지대추구 경향을 강화한다. 이른바 전문직 프리미엄을 높이는 것이다. 진입하는 출입구를 견고히 할수록 특권 계층은 자신들의 서비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지고, 그로 인해 수익 또한 더욱 늘어난다. 둘째,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전문직 프리

15) Matthew Stewart, 『부당세습』, 23 참고.

미엄이 커질수록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자녀 세대에 물려줄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연유로 특권 계층은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에 사활을 걸게 된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자녀가 앞으로 누리게 될 능력 프리미엄을 이 어받도록 하기 때문에 더욱 배타적 성향을 띠게 된다.<sup>16)</sup>

그런데 경제적 불평등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누고 누려야 할 일상의 공통 경험을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간격을 만들면서 사회적 거리로 단절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시된다. 소수의 엘리트 계층은 일반 대중과 점점 멀어지며 공통의 관심사 또한 점차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불평등의 결과 빈곤층은 복합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상대적 빈곤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만들며, 심지어 수명까지 단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혈중 수치가 높아 면역 체계가 과잉 반응하고 염증 수치 또한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sup>17)</sup> 빈곤에 처한 이들은 충동적으로 되어 생명을 잃을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킴으로 부유한 이들보다 수명이 단축될 확률 또한 높다. 불평등이 심한 국가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폭력, 유아 사망률, 비만, 당뇨, 정신질환 등의 건강 지표들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 2.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

경제학자 매트 블룸은 메이저리그 야구팀의 승패 기록을 8년간 집계하여 분석한 결과 연봉 불평등과 팀 성적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팀 내 선수들 간의 연봉 격차가 심한 팀일수록 팀의 성적이 더 나쁘는데, 메이저리그 야구팀뿐만 아니라 전미 풋볼 리그(NFL)에서도 마찬가지로

16) 같은 책, 136 참고.

17) Keith Payne, 『부러진 사다리』, 158 참고.

지였다. 불평등은 스타 선수들의 의욕을 높여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팀의 단결과 화합을 해치는 부작용을 낳았다. 선수들 간의 연봉 불평등이 심할수록 팀 전체의 사기와 팀워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sup>18)</sup>

차이가 불평등으로 인식될 때 선망과 동시에 원망과 질투의 감정을 복합적으로 느끼는데, 이를 르상티망(ressentiment)이라고 한다. 불평등의 부당함에 대한 인식은 르상티망이라는 집단 정서를 형성하면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된다. 르상티망은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공정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데서 비롯되는 불편한 감정이다. 르상티망은 겉으로만 선심을 베푸는 기득권 계층에 대한 원망을 낳고, 응당 누릴 자격도 없으면서 온갖 혜택을 훔치고 있는 것으로 비치는 사회 내부의 또 다른 적대 세력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유발한다.<sup>19)</sup>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르상티망은 공동체 내부로 확산되면서 분노와 적개심과 원망의 감정이 커져이 쌓여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킨다.

1929년에는 대공황이, 2008년에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 전 해는 미국의 상위 1%의 소득집중도가 가장 높았던 시점이었다. 총소득 중 상위 1%에게 돌아간 몫이 23%를 넘으면서 최고치에 달했다.<sup>20)</sup> 자본주의는 불평등이 최고로 높았을 때 바로 파국을 맞게 되었다. 반면 불평등이 최저로 낮았을 때 자본주의는 황금기를 누렸다.

토마 피케티는 자본이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노동 소득의 불평등보다 더 심각한 불평등의

18) 막대한 돈을 써서 대형 스타 선수를 영입한 팀의 전반적인 성적은 오히려 떨어지긴 했지만, 팀 운영을 통한 수익은 오히려 늘었는데, 그 이유는 스타 선수들을 보기 위해 팬들이 경기 티켓과 미디어에 돈을 아낌없이 썼기 때문이었다. 같은 책, 224-225 참고.

19) Richard Sennett, *The Culture of the New Capitalism*, 유병선 옮김, 『뉴캐피탈리즘 : 표류하는 개인과 소멸하는 열정』 (서울 : 위즈덤하우스, 2009), 159 참고.

20) Robert Reich, *After Shock*, 안진환·박슬라 옮김,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파주: 김영사, 2011) 43.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sup>21)</sup> 자본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자본 스스로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더욱 악화된다. 돈이 돈을 낳는 속도가 성실한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속도보다 앞지르게 될 때,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의 감정이 퍼져나간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그 이하로 더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되는 빈곤의 한계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지나친 탐욕으로 인해 그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되는 부의 한계 또한 있어야 한다. 지나친 부요함으로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려워하며 지나친 가난으로 비굴해지거나 도둑질하지 않을까 염려한 아굴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잠언 30:8-9) 지나친 부와 가난에 대한 이와 같은 관계적이고 상대적인 이해는 부의 분배와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sup>22)</sup>

불평등은 사회불안과 갈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기에 공동체 안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힘써야 한다. 불평등을 줄인다는 것은 계층의 사다리 아래쪽은 더 올리고 위쪽은 내려 보다 공평해지려고 노력한다는 의미이다. 불평등이 완전히 없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평등의 수위를 조절하여 승자독식이 아닌 공정한 경쟁과 상생의 미덕을 통해 하위 계층이 더 나은 삶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을 제공하도록 힘써야 한다.

21) Thomas Piketty, *(Le) Capital au xxi Siecle*, 장경덕 외 옮김, 『21세기 자본』 (파주: 글항아리, 2015).

22) 장윤재는 이러한 한계선을 빈곤선(poverty line)과 탐욕선(greed line)이라 하였다. 장윤재,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신학의 응답,” 『신학과교회』 3(2015. 여름), 302.

## IV. 상생의 윤리

### 1. 연대와 협력

폴 틸리히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우리가 바라지 않음에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고독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했다.<sup>23)</sup>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적 삶은 언택트로 변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갈망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무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 와중에 소외된 이들은 더욱 큰 단절과 배제의 나락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크다. 서로 연대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무질서와 혼란, 소외와 불평등으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언택트로 인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한다.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는 조용한 해안 도시 오랑에 페스트가 퍼지면서 전염병에 대처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페스트가 퍼지기 전, 오랑 시민들은 평범한 소시민들이었다. 하지만 페스트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페스트를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연대하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류’는 의사로서 헌신과 성실함으로 모범을 보였다. 페스트가 오랑 시 전역에 퍼져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음에도, 그는 흔들림 없이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페스트로 의심되는 환자를 진찰하고 돌보면서 상대적으로 전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변두리 지역부터 보살폈다. 또한 그는 새로운 혈청을 시험하여 페스트 치료를 위한 접종을 시행하는 등 시시각각 환자들의 병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

23) 송용원, 『하나님의 공동선』 (성서유니온, 서울: 2020), 10.

해 최선을 다했다.

오랑에 우연히 체류하게 된 신문기자 ‘랑베르’, 그리고 부당한 죽음을 거부하며 투쟁하는 ‘타루’, 자질구레한 행정업무를 맡은 하급 공무원이었던 ‘그랑’은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그랑은 류를 도와 묵묵히 환자 카드를 작성하고 사망자 통계를 내며 눈에 띄지 않는 많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낸다. 그랑은 페스트에 감염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지만, 극적으로 회복되어 페스트를 극복하는 분기점이 되었다.

재난은 공동체의 연대성을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 연대성이 약한 공동체는 재난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로 인해 타인을 믿지 못하고, 타인의 고통에 쉽게 눈감아 버리고 각자도생의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불러일으켜 아노미 상태로 치닫게 된다. 반면 연대성이 강한 공동체는 끈끈하게 연결된 유대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며 상생을 도모한다.<sup>24)</sup>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도 서로를 좀 더 배려하며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돌파하려 한다.

한나 아렌트는 일하는 인간의 이미지를 ‘아니말 라보란스(Animal laborans)’와 ‘호모 파베르(Homo faber)’로 구분하였다.<sup>25)</sup> 아니말 라보란스는 굴레를 짊어진 채 매일 고된 일을 되풀이 하는 일하는 동물로서의 인간이다. 아니말 라보란스는 원자폭탄을 ‘매력적’으로 느꼈던 오펜하이머나 보다 효율적인 가스실을 만들기 위해 절치부심했던 아이히만에게서 발견된다.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빚게 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반성 없이 세상과는 차단된 채 일 자체에만 몰두했다. 반면

24) 이종원, “혐오에서 공감과 환대로: 코로나19 시대의 공감과 환대,” 『기독교사회윤리』 49(2021. 4), 126, 127.

25) Richard Sennett, *The Craftsman*, 김홍식 옮김, 『장인』 (과주: 21세기북스, 2011), 21 참고.

호모 파베르는 공동의 삶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제작하는 인간의 이미지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른 이들과 함께 토론하며 서로 어울려 협력하면서 일하는 모습이다.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자연 상태 속의 인간은 야수로, 이빨과 발톱이 붉게 물든 짐승으로 등장한다. 자연에는 미술도 문학도 사회도 없다. 오직 끊임없는 공포와 위협이 계속된다.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사악하고 야만스럽고 짧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서 인간의 이성은 허약하다. 자연 상태 속에서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결코 균형이 아니므로, 인간의 평화로운 협력 능력은 빈약하다. 따라서 자연 상태의 야수성을 극복하고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

리처드 세넷은 협력을 약화시키는 두 가지 힘을 구조적 불평등과 새로운 노동 형태라고 지적하였다.<sup>26)</sup> 구조적 불평등이 서로를 단절시키고 급변하는 노동 환경이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들어 협력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급변하는 노동 구조는 다른 이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과거에는 한 가지 기술과 경력만 가지고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비정규직과 같은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노동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이처럼 단기적 노동 환경은 피상적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조직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함께 일하는 이들이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오래 머물지 않는다면서 서로 깊은 애정이나 관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잠시 일하다 떠나는 이들에게서 조직이 구현하는 이상과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렵다.

26) Richard Sennett, *Together: The Rituals, Pleasures and Politics of Cooperation*, 김병화 옮김, 『투게더』 (서울: 현암사, 2013), 288.

서로 간의 관계가 피상적이고 일하는 기간 또한 짧기에 혼자서 일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자신과 직접 상관없는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sup>27)</sup>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바로 사일로 효과(silo effect)이다. 사일로 효과란 사일로(곡물을 저장하는 굴뚝 모양의 창고) 형태로 고립된 채 일 하면서 서로 잘 소통하지 않는 경향성을 의미하는데, 조직 내의 개인이나 부서가 귀중한 정보를 다른 개인이나 부서와 거의 공유하지 않고 그냥 쌓아두고만 있으면서 차츰 고립되는 현상이다.

세넷에 의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것은 인간의 유전자 속에 각인된 본성이다. 그런데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에, 협력은 개발되고 연마되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협력이란 익히고 훈련해야 하는 하나의 기술이며, 실기(craft)이다.<sup>28)</sup> 협력하는 실기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연마되어야 하며, 실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야 하기에 일 자체와 더불어 상대에 대한 존중과 헌신도 필요하다. 세넷은 협력하며 일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응답하는 기술을 터득해야 하는데, 그 과정은 매우 어려우면서도 분명한 해답조차 없는 과정일 수 있다고 하였다. 세넷은 이를 ‘같이 노는’ 장인과 ‘따로 노는’ 장인에 비유하였다.

전문가가 되는 길에는 같이 노는 방식이 있고, 따로 노는 방식도 있다. 수공업 장인은 작업하는 물건과 계속 대화하면서 물건에 변화를 주고 다듬어간다. 작업 대상은 장인과 떨어져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장인이 펼치는 무대에 출연하는 주인공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노는 전문가는 전문지식의 시야를 펼쳐서 다른 이들을 초청할 무대를 만든다. 그 무대에서 다른 이들과 대화한다. 전문가에는 말쑥 난 문제를 교정하는 일이 곧 찬찬히 가르쳐주는 일이다. 그

27) 같은 책, 30.

28) 같은 책, 468 참조.

가 일을 풀어가는 작업 표준은 투명하다. 반면 따로 노는 전문가들은 다른 이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전문가 스스로 곤란에 처하며, 자신을 고립시킨다.<sup>29)</sup>

세넷은 협력과 연대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 방식은 하향식 연대인 제휴이다. 제휴는 상층부와 토대와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제휴는 자칫하면 독재나 음모와 밀실거래로 변질되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이 하향식으로 시행되면 평등은 약해지고 연대는 허울에 그친다.<sup>30)</sup> 둘째 방식은 상향식 연대로서 공동체이다. 세넷이 생각하는 협력의 공동체는 사람들이 일대일 관계의 가치를 지키고 그런 관계의 정치적·경제적 한계를 모두 실현해내는 과정으로서의 공동체이다. 그것은 세계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세넷에 따르면,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한 교환행위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첫째, 자기희생을 수반하는 이타적 교환, 둘째, 양쪽 모두 이익을 얻는 윈-윈 교환, 셋째, 파트너들이 각자의 차이를 알게 되는 차별화하는 교환, 넷째, 어느 한 편은 손해를 보고 다른 편은 그만큼 이익을 얻는 제로섬 교환, 다섯째, 한쪽 편이 다른 쪽을 일소해버리는 승자독식의 교환이다.<sup>31)</sup> 자연 생태계에서 최고 포식자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한다. 거기에는 상호 이익이나 호혜 같은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에 적용된 승자독식의 교환은 전면전과 인종 말살의 논리가 작용하여 피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하지만 승자독식의 교환이 아니라 협력과 상생을 위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9) Richard Sennett, 『장인』, 401.

30) Richard Sennett, 『투게더』, 473.

31) 같은 책, 129-149 참고.

원시의 수렵채집 사회가 평등했던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사냥에서 잡은 동물이나 나무에서 딴 열매 외에는 재산이라 할 만한 것이 없어 집단 내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부를 축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sup>32)</sup>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서는 혼자 독식하기보다는 남들과 나누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 사냥해서 풍족할 때 호의를 베풀어 두면 다음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남에게서 보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호의와 나눔은 서로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협력의 기반을 굳건하게 다지게 된다.

## 2. 카리타스와 은혜

게오르크 짐멜(Georg Simmel)에 따르면, 대면적 상호 작용은 아무것도 아닌 텅 빈 물리적 공간을 의미 있는 사회적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였다.<sup>33)</sup> 대면적 상호 작용에 들어간 사람들은 상대방과 감각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눈 마주침은 대면적 상호 작용의 가장 직접적이고 순수한 형식이라는 것이다. 눈 마주침을 통해 각자 고유한 영혼을 교환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시선의 호혜성이 수립되는데, 이 시선의 호혜성이야말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구성하는 근대 사회성의 씨앗이라고 하였다.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보다 언택트가 일상화되는 삶을 위해서는 카리타스와 은혜의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소박파 화가 에드워드 히스(Edward Hicks)가 그린 평화로운 왕국은 숲 가장자리에 곰, 사자, 표범 등 온갖 종류의 야수와 양이 함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그림은 타락 이전의 에덴동산을 보여주는데,

32) Keith Payne, 『부러진 사다리』, 33.

33) 기모란 외, 『멀티플 팬데믹』 (서울: 이매진, 2020), 149.

색조가 아름답게 균형 잡혀 평화로운 세상의 모습을 돋보이게 한다.<sup>34)</sup>

약육강식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경제는 점차 비정규직화되어 가고, 해지펀드와 기업 사냥꾼들이 득실거리는 흉측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언택트 영역에도 승자독식의 경제구조가 지배한다면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을 위한 상상력은 카리타스(caritas)에 기초한 은혜로 교정된 시선이 필요하다. 카리타스는 자신이 뭔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전략적 사교성이나 교활하게 계산하는 기술과는 차원이 다르다.<sup>35)</sup> 카리타스는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며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에게도 지극한 관심과 애정을 쏟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사랑을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의 삶을 통해 몸소 보여주었다.

〈바베트의 만찬〉은 덴마크 출신 작가 이작 디네센(Isak Dinesen: 1885-1962)의 단편을 토대로 만든 영화이다. 덴마크의 작은 해안 마을 바베트가 프랑스 혁명 중에 가족을 잃고 도망쳐오게 된다. 바베트를 맞이한 두 자매는 목사의 딸로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시골교회를 돌보고 있었다. 바베트는 주방일을 자처하면서 두 자매와 함께 살게 된다. 시골교회 공동체는 비록 가난하지만 신앙과 사랑으로 화목했었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시자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분열되기 시작한다.

돌아가신 목사님의 100번째 생일날, 바베트는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 만찬을 제공하겠다고 말한다. 바베트는 복권 당첨으로 받게 된 만 프랑의 상금을 만찬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한다. 만찬에 초대된 마을 사람들은 최고의 요리사였던 바베트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보면서 마음의 빚

34) Richard Sennett, 『투게더』, 119.

35) 같은 책, 417.

장을 열게 된다. 만찬 후 사람들은 광장에 둘러서서 손을 잡고 찬양을 부르며 “은혜와 진리가 하나로 만나고, 의와 천국의 기쁨이 입맞추는 밤”을 만끽한다.

은혜의 시각으로 교정된 카리타스 정신은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에서 잘 드러난다.

내가 당신에게 캐비어를 팔면 당신은 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는 장갑이나 호저의 가시털로 값을 치러야 한다. 양측은 균형을 맞추고 시장은 투명해진다. 그러나 모스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를 정서적으로 결속시키는 교환은 아니다. 우리의 관계는 등가물을 계산하는 일을 멈출 때에야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식당에서 계산서가 나오면 누군가가 각자 음식과 술을 얼마만큼 먹었는가를 계산해서 각자가 얼마를 부담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그 순간 저녁 식사의 즐거움은 눈 녹듯 사라진다. 오히려 그런 계산을 하지 않고 돈을 낼 때, 즉 공연한 법석을 떨지 않고 일행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감춰줄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친구로서 행동하게 된다.<sup>36)</sup>

시혜를 받아 혜택을 누린 쪽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에 상응하는 등가물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그에게 베풀어야 한다. 등가적 교환은 모종의 보답을 통해 사람들을 결속시키지만, 비대칭적인 형태의 교환은 자원을 균등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계급과 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이 가진 자가 자발적으로 더 많이 베풀어서 한 발짝 더 공평에 다가갈 수 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선대하는 것이며,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돌볼 때 보다 평화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36) Richard Sennett, 『불평등 사회의 인간 존중』, 273.

### 3. 살림과 누림의 경제

불공평과 부정의를 극복하고 상생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서사적 삶을 구성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서사적 삶이란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건과 경험들이 축적되는 것이다. 세넷은 서사적 삶을 위한 혁신적인 시도는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sup>37)</sup> 첫 번째 대안은 기존 노동조합을 대체하는 병렬 조직의 설립을 통해 서로 간의 연대와 협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이는 근속연수가 짧아지고 고용이 점점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노동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지탱시키는 새로운 방식이 된다.

두 번째 대안은 공유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다. 아웃소싱이 활발한 네덜란드에서는 일자리가 개발도상국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네덜란드인들은 하나의 일자리를 두세 명이 공유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누어진 일자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여서, 원하는 사람은 시장 상황에 따라 파트타임 일자리를 한 개 이상 더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대안은 기본소득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길게 보고,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정액을 나눠주고, 그 사용을 개인에게 맡기는 지극히 단순한 제도이지만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을 제공한다.

심리학자 크리스털 홀은 뉴저지주의 어느 도심 빈민가에 있는 무상 급식소를 찾아가 그곳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이들과 실험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한 그룹에게는 자신이 자랑스럽고 성공한 사람처럼 느껴졌던 경험에 대해 몇 분 동안 이야기하게 했다. 다른 그룹에게는 그저 그들의 일과

37) Richard Sennett, 『뉴캐피털리즘』, 218-220 참고.

를 물어보았다. 그런 다음, 두 그룹 모두에게 사회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빈곤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복지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빈곤을 극복하는데 이롭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적인 난관에 주눅이 들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사고 탓에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5분 동안 긍정적인 경험에 관해 이야기한 사람들은 다른 대조 그룹보다 복지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sup>38)</sup>

누구나 자랑스럽고 성공했던 순간들이 있으며, 그러한 순간을 위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품도록 돕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사회적 배경 속에서 습관적으로 자신의 상대적 지위를 평가한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무의식적으로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패턴을 끊을 수 있다.<sup>39)</sup>

러스킨은 자본을 잘 만들어진 보습에 비유하였다. 만약 보습이 그저 다른 보습을 증식하는 것 외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보습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보습에 불과하다. 보습이 자가 증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소모함으로 발고량을 만들 때 진정한 보습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본이 자본을 낳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보습처럼 자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진정한 자본의 역할과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가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당신은 보습을 몇 개나 소유하고 있습니까?”가 아니라 “당신의 발고량은 어디에 있습니까?”이고, “이 자본이 얼마나 빨리 증식하겠습니까?”가 아니라 “생명의 증식을 위해 자본을

38) Keith Payne, 『부러진 사다리』, 260.

39) 같은 책, 260-261.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야 한다.<sup>40)</sup>

세상을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더 많은 부보다 소박한 삶을, 더 높은 지위보다 더 깊은 행복을 추구하기로 마음먹고, 마음의 평정을 제일 중요한 재산 삼아 평화로운 생활에 대한 자부심과 평온함을 추구하는 데서 진정한 명예를 느끼는 사람이다.<sup>41)</sup>

이것이 바로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가 평화와 서로 입맞추는(시편 85:10)”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며, 우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행하는 자들의 평화로 씨를 심기에(야고보서 3:18)” 평화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힘써야 한다. 러스킨은 부는 곧 생명이라고 하면서 진정한 생명을 위해 부를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생명은 사랑과 환희와 경외가 모두 포함된 총체적인 힘이다. 그러므로 가장 부유한 국가는 최대 다수의 고귀하고 행복한 국민을 길러내는 국가이고, 가장 부유한 이는 그의 안에 내재된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다. 그가 소유한 내적, 외적 재산을 골고루 활용하여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생명이 곧 진정한 부라고 말한 러스킨은 죽음에 맞선 생명의 경제학, 뜨거운 인간애가 흐르는 경제학을 주창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부는 곧 생명이고, 이러한 부를 얻기 위한 선결 조건은 정직과 애정이다.<sup>42)</sup>

성서가 구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우호적 선택과 모두를 위한 풍성한 생명이라는 두 개의 비전으로 요약될

40) John Ruskin, *Unto this last*, 김석희 옮김,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생명의 경제학』 (서울: 느린걸음, 2007), 187 참고.

41) 같은 책, 209.

42) 장윤재,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신학의 응답”, 307-308.

수 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생명 살림의 경제’가 바로 성서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경제다. 이윤과 경쟁의 구조에서 벗어날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을 품는 포용적인 경제다. 바로 이것이 모두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살림의 경제다.

알렌 크라이더는 『회심의 변질』에서 초대교회의 회심이 지닌 세 가지 특징을 분석하였다. 초대교회에는 3B,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적인 회심(Belief), 새롭게 거듭난 행동(Behavior)의 변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신앙 훈련을 받는 소속(Belonging)의 변화라는 세 가지 변화된 삶의 양태가 수반되었다.<sup>43)</sup> 초대 교인들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가르쳤지만, 공개적으로 복음 전도를 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선교는 역동적으로 진행되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삶의 변화와 그에 따른 성품,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를 가꾸어 감으로써 생겨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주제 사라마구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는 시각을 마비시키는 바이러스가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는데, 성찰하지 않는 문명이 어떻게 몰락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시각이 마비되자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야만적 본성을 드러내는 이들로 인해 약자들이 고통을 당한다. 이들은 시신경이 마비된 가운데서도 식량과 무기를 확보하고 권력을 갖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운다. 하지만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고 도우며 생존하는 한 집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이들은 바이러스로 인해 시력은 잃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눈을 뜬 자들이었음을 강조하는데, 소설은 이들이 시력을 다시

43) Alan Kreider, *Change of Conversion and the Origin of Christendom*, 박삼중 외 옮김, 『회심의 변질』 (대전: 대장간, 2013), 9.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밥상 공동체를 이루었다. 새로운 정체성과 소속감 그리고 회소성을 보여주었다. 이 세상과 다른 대안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도영,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의 과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67.

회복하는 것으로 끝난다.<sup>44)</sup> 재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선한 본성을 잃지 않고 서로 신뢰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 힘쓴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 V. 나가는 말

위에서 언택트 시대에 직면한 사회적 불평등에 주목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상생의 윤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동안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관계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된다. 어려운 때일수록, 사랑과 은혜의 시선으로 존중과 배려, 우애와 평안, 연대와 포용으로 가득 찬 공존과 상생의 공동체를 가꾸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선물이 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이를 항상 기억하도록 빵과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 때 언제 울지 모르는 손님을 위해 의자 하나를 비워두는 풍습이 있다. 이는 유대인 특유의 환대 문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언택트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평등의 중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무심하게 방관하기보다 약자를 위해 빈자리를 하나씩 마련하면서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 상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난은 우리 사회의 수준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이 불평등을 불러온 것이 아니다. 불평등은 이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다가 재난으로 선명하게 드러났을 뿐이

44) Jose Saramago, *Ensaio Sobre a Cegueira*, 정영목 옮김, 『눈먼 자들의 도시』 (서울: 해냄출판사, 2010).

다. 사회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들은 재난 상황에서 그들이 받는 피해에 비해 덜 드러난다. 이들의 신음과 고통은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취약성은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팬데믹의 여파로 서로 대면하는 방식은 줄어들고, 언택트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오만과 독선, 탐욕과 빈곤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지, 아니면 신뢰와 존중,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다. 신뢰와 연대로 서로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보다 공평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평화의 왕국을 이루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이다.

## 참고문헌

- 기모란 외. 『멀티플 팬데믹』. 서울: 이매진, 2020.
- 김누리 외. 『코로나 사피엔스, 새로운 도약 : 대한민국 대표 석학 8인이 신인류의 지표를 제시하다』. 서울: 인플루엔셜, 2021.
- 김명훈. 『카키스토크라시』. 서울: 비아북, 2021.
- 김용섭. 『언컨택트』. 서울: 퍼블리온, 2020.
- 송용원. 『하나님의 공동선』. 성서유니온, 서울: 2020.
- 이도영.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의 과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 이상근. 『뉴노멀시대 물류기업은 사라질까』. 서울: 아웃소싱타임스, 2021.
- 이종원. “혐오에서 공감과 환대에로: 코로나19 시대의 공감과 환대.” 『기독교사회윤리』 49(2021. 4), 105-138.
- 장운재.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신학의 응답.” 『신학과교회』 3(2015. 여름), 273-316.
- Adler, Paul. *The 99 Percent Economy*. 한은경 · 김윤진 옮김.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 파주: 21세기북스, 2021.
- Attali, Jacques. *L'economie de la vie*. 양영란 옮김. 『생명경제로의 전환』. 서울: 한국경제신문, 2020.
- Camus, Albert. *La Peste*. 유혜경 옮김. 서울: 소담출판사, 1996.
- Freud, Sigmund. *Das Unbehagen in der Kultur*. 김석희 옮김. 『문명 속의 불만』. 파주: 열린책들, 2020.
- Kreider, Alan. *Change of Conversion and the Origin of Christendom*. 박삼중 외 옮김. 『회심의 변질』. 대전: 대장간, 2013.
- Payne, Keith. *Broken Ladder*. 이영아 옮김. 『부러진 사다리』. 서울: 와이즈베리, 2017.
- Reich, Robert. *After Shock*. 안진환 · 박슬라 옮김.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파주: 김영사, 2011.
- Ruskin, John. *Unto this last*. 김석희 옮김.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생명의 경제학』. 서울: 누린결음, 2007.
- Saramago, Jose. *Ensaio Sobre a Cegueira*. 정영목 옮김. 『눈먼 자들의 도시』. 서

을: 해냄출판사, 2010.

Sennett, Richard. *Respect: The Formation of Character in an Age of Inequality*. 유강은 옮김. 『불평등 사회의 인간 존중』. 서울: 문예출판사, 2004.

\_\_\_\_\_. *The Culture of the New Capitalism*. 유병선 옮김. 『뉴캐피털리즘: 표류하는 개인과 소멸하는 열정』. 서울: 위즈덤하우스, 2009.

\_\_\_\_\_. *The Craftsman*. 김홍식 옮김. 『장인』. 파주: 21세기북스, 2011.

\_\_\_\_\_. *Together: The Rituals, Pleasures and Politics of Cooperation*. 김병화 옮김. 『투게더』. 서울: 현암사, 2013.

Schopenhauer, Arthur. *Parerga und Paralipomena*. 김재혁 옮김. 『쇼펜하우어 인생론』. 서울: 육문사, 2012.

Stewart, Matthew. *(The) 9.9 Percent is the New American Aristocracy*. 이승연. 『부당세습』. 서울: 이음, 2005.

Stiglitz, Joseph E. *Price of inequality*. 이순희 옮김. 『불평등의 대가』. 파주: 열린책들, 2013.

“미닝 아웃이란? 언택트 뜻, 언택트란?” <https://krand.kr/113> (2021년 11월 11일 접속)

“세계인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코로나가 아니었다, 1위는 ○○○”

<https://news.v.daum.net/v/20211113091603777> (2021년 11월 13일 접속)

“이마트24 셀프스토어 ‘찍고, 들고, 나오면’ 끝”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168> (2021년 11월 20일 접속)

논문투고일: 2022년 02월 28일

심사개시일: 2022년 03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04월 01일

---

• 국 문 초 록 •

---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불안정성, 불평등성, 불확실성 등의 비정상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본 소고에서는 언택트 시대에 직면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생의 윤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변으로 밀려나 소외된 이들을 품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연대하면서 하나가 되어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춤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불공평과 부정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시도는 첫째, 기존 노동조합을 대체하는 병렬 조직의 설립을 통해 서로 간의 연대와 협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둘째, 공유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다. 셋째, 기본소득을 통해 사람들이 새롭게 인생을 설계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우호적 선택과 모두를 위한 풍성한 생명이라는 두 개의 비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경제는 이윤추구를 위한 경쟁 구조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을 품는 포용적인 경제다. 바로 이것이 모두가 상생하는 살림의 경제다.

**주제어:** 언택트, 공존, 상생, 언택트 디바이드, 불평등, 연대, 협력

---